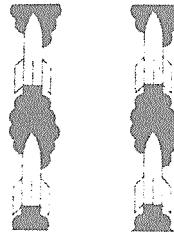


## 電子工業日誌



〈1988. 7. 1~7. 31〉

7. 2 : 日本 通産省, 256K DRAM 생산은 줄어드는 반면 1M DRAM 생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.
7. 2 : 貿公, 프랑스에 대한 국산 라디오류 및 컬러 TV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.
7. 3 : 貿公, EC가 한국산 VTR에 대해 곧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.
7. 3 : 遷信部, 전화교환기의 국산화율은 66~77%에 불과하다고.
7. 4 : 貿公, EC가 전자렌지와 소형 컬러 TV에 대해서도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.
7. 6 : 遷信部, 내년중에 모든 통신용 단말기를 형식승인대상 품목으로 고시키로.
7. 6 : 商工部, 이달중 수입선전환 가능품목 100개를 새로 발굴할 계획.
7. 7 : 貿公, 유고슬라비아에 무역사무소 개설.
7. 7 : KIET, 대공산권 교역량은 80년대 들어 연평균 40% 이상 증가했다고.
7. 8 : 中小企業中央會,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.
7. 12 : EC, 덤핑방지 규칙을 개정, 수입제품의 덤핑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.
7. 13 : 遷信部, ISDN 시범사업 적극 추진.
7. 15 : EC, 컬러 TV 덤핑 현장조사 착수.
7. 16 : KIET, 미국경제는 89년 경제성장률이 2.5% 내외로 낮아질 것이라고.
7. 19 : 科技處, 컴퓨터 설치가 활발한 가운데 대당 150만달러 이상의 초대형 컴퓨터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고.
7. 20 : 日本電子機械工業会, 세계전자부품 수요는 오는 90년에 736억달러에 달해 87년보다 32%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.
7. 20 : 科技處, 93년까지 100억여원을 투입, 교육전산화 기반 구축 계획.
7. 20 : EC, 한국산 VTR의 예비판정에서 30%에 가까운 고율의 덤핑 마진율을 결정.
7. 21 : 工振序,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이 KS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.
7. 24 : 商工部, 亞·中東지역이 새로운 유망수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.
7. 26 : 日本三菱電機, 내년 4월부터 최첨단 제품인 1M DRAM을 생산하기로.
7. 26 : EPB, 국내 수출기업 80% 정도가 금년말 对美 원화 환율은 690원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.
7. 26 : 科技處, 국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키로.
7. 27 : 通信公, 비음성 통신분야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.
7. 27 : KIET, 최근의 美 달러 貨 강세가 올하반기중에 약세로 반전될 것이라고.
7. 27 : 商工部, 해외기술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.
7. 27 : 貿公, 금년 하반기에는 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돼 15%선에 머물 것이라고.
7. 28 : 韓銀,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 올 1월부터 6월말까지의 흑자총액이 47억달러를 넘어섰다고.
7. 28 : 工振序, 국내기업들의 JIS획득이 크게 늘어날 전망.
7. 29 : 中国, 올 상반기 중국에 투자를 신청, 허가받은 외국기업들은 2,109개에 달했으며 투자규모는 美貨 20억 2,100만 달러에 달했다고.
7. 29 : 日本 소니, 내년 여름부터 대국에서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고.
7. 29 : 商工部, TV·냉장고·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유통 마진이 10% 미만이라고.
7. 30 : 科技處,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1,900억원을 투입, 16 및 64M DRAM을 개발키로.
7. 30 : 貿協, 전자전기제품이 올 상반기중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했다고.
7. 30 : 大만, 대만의 해외무역 규모가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주요경쟁국인 한국을 앞질렀다고.
7. 30 : 特許序, 최근의 지적소유권 강화 추세에 맞춰 공업소유권제도를 현대화·국제화하기 위해 특허법·상표법 등 공업소유권 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키로.
7. 31 : 商工部, 우리나라에 대한 EC의 통상압력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어 韓·EC 간의 통상관계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.